



익산 제석사지 와줍경관의 변화

Changes in Tiled Roof Landscape of
Jeseoksa Temple Site in Iksan

김 환 희

백제왕도해석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학예연구사

I. 머리말

II. 연구 목적과 방법

III. 제석사지 출토 기와 분석

IV. 제석사지 와줍경관의 변화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기와의 주된 역할이 지붕의 마감재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대단위 개체가 결합되어 일련의 구성체로서 기능하는 지붕 모습을 와즙경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익산 제석사지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다종다양한 기와들의 기술적·형태적 속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막새는 곡절형 연화문이 성행하는데, 세부 속성에 따라 6개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창건가람에서는 곡절1·3·5·6이, 중건가람에서는 곡절2~6이 확인되며, 가람에 따라 개별 형식이 추가되거나 단절되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중건가람에서 등장하는 암막새를 통해 경관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연유는 기존 양식의 유지라는 보수적인 측면과 새로운 양식의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사찰의 창건(7세기 전반), 전소(639년), 중건(7세기 중반)을 변화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창건가람과 중건가람의 와즙경관을 살펴보았다. 창건가람은 곡절형 연화문 수막새만으로 경관이 형성되는 반면 중건가람은 새롭게 인동당초문암막새를 도입하여 비로소 수막새와 암막새가 세트가 되는 경관이 형성된다. 특히 중건가람 금당지에서 곡절3 연화문수막새와 인동당초문암막새가 집중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사찰 내에서도 건물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와즙경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와들의 규격을 산출하여 결합 방식과 정도를 추정하였다. 수막새의 직경이 11.6~14.5cm에 분포하고 암막새(암키와)의 너비가 28~32cm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암막새(암키와)의 중앙이 약 1/2 노출된 상태로 수막새와 결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구기와의 길이는 30~32cm이지만 미구부가 4~6cm인 점을 감안하면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은 24~28cm가 되는데, 이는 건물 내 기와 끝단의 가로 라인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한편 암키와는 길이 35~42cm에 분포하고, 토수기와는 길이 35~40cm에 분포하고 있어서 앞서 도출된 미구기와와 동일한 가로 라인을 형성한다면 겹쳐지는 범위가 1/3이며, 이를 통해 2배 잇기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하였다.

주제어 : 백제, 제석사지, 기와, 경관, 변화

I . 머리말

흙을 선정하여 태토(胎土)를 마련하고,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형태(形態)를 만들고, 파손을 막기 위한 건조와 관리를 거친 후에, 가마에 적재하여 고온에서 소성한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기와이다. 이처럼 체계화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기와는 기능적인 측면과 경관적인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축 부재로써 당시 시대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만 건축 부재로써 기와는 1매만으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세트(막새, 평기와 등)를 갖춘 구성체이면서도 디수의 수량이 확보되어야만 지붕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즉 지붕에 기와가 이어진 모습(瓦葺景觀)이야말로 제작자가 의도했던 실제 경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와습경관을 복원하는 것은 실물자료의 미비로 인해 쉽지 않아 발굴조사 현장에서 확인되는 자료로만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와라는 유물의 특성상 형태와 문양 등에서 비교적 차이가 크지 않아 세부적인 구분도 쉽지 않다. 또한 기와건물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수, 중수 등이 이루어지며 재사용의 양상도 관찰되어서 구분이 애매한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그동안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와습경관을 살펴보려는 연구(정치영 2010; 최경환 2017)도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기와 연구의 주된 방향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익산 제석사지라는 한정된 공간과 백제 사비기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사용되었던 기와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와습경관으로써의 기와 구성체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또한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암막새의 존재는 와습경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와습경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 연구 목적과 방법

다양한 종류의 기와들이 모여 세트를 구성하고 여러 방식으로 지붕에 올려져 다채로운 와습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서까래 끝에 위치한 막새기와는 경관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를 가진다. 대개 건물의 와습경관은 일률적인 경관

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대적, 지역적 양식 혹은 건물의 위계 등으로 인해 다양한 경관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건물의 와즙경관을 복원하는 것은 지붕에 올렸던 기와의 규격, 문양, 제작기법, 연대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건물이 존재했을 당시의 와즙경관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 누가 어디서 바라본 경관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만한 자료(문헌, 그림 등)가 부족한 편이어서 무리한 해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양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된 연구의 흐름이 기와의 제작연대, 제작기법, 수급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생각된다. 기와의 주된 역할이 지붕을 구성하는 건축부재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제는 지붕의 부재로써 와즙경관을 이해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시론적으로라도 와즙경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편년이 분명하고, 변화 양상이 뚜렷한 대상(유적)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헌과 고고자료의 검토를 통해 유적의 형성과 폐기, 구조와 배치 등이 확인된 익산 제석사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와즙경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익산 제석사지는 문헌기록과 고고자료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중요한 유적이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2013). 중국 육조시대 문헌인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¹⁾』에는 건립 주체, 위치, 사찰명, 배치 등의 직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사찰이 건립된 이유와 화재로 인해 전소(全燒)된 이후 다시 절을 조영했다는 내용 등 입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어서 사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유적이기도 하다. 또한 제석사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의 변천 과정이 확인되었고(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2013; 전용호 2017), 출토유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제석사지를 비롯한 인근 유적과의 관계성을 검토한 연구도 진행되어(김선기 2012, 2016; 양숙자 외 2013; 李炳鎬 2015; 김정현 2017; 전용호 2017) 고고자료를 통한 변화 양상도 파악되었다. 실제로 제석사

1) 《觀世音應驗記》百濟武廣王 遷都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 天大雷雨 遂災 帝釋精舍 佛堂 七級浮圖 乃至廊房 一皆燒盡 塔下礎石中 有種種七寶 亦有佛舍利 眇水精瓶 又以銅作紙 寫金剛波若經 貯以木漆函 發礎石開視 悉皆燒盡 唯佛舍利瓶 與波若經漆函 如故 水精瓶 內外徹見 盖亦不動 而舍利悉無不知所出 將瓶以歸大王 大王請法師發即懺悔 開瓶視之 佛舍利六箇 個在處內瓶 自外視之 六箇悉見 於是 大王及諸宮人 倍加敬信 發即供養 更造寺貯焉

지에서 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지점에 제석사가 불타고 남은 잔여물을 폐기한 유적이 확인되었는데(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 간의 관계가 검증되어서(김환희 외 2021) 해당 기록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제석사지는 다른 유적들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와즙경관의 변화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사진 1] 제석사지 및 제석사지 폐기유적 전경(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표 1] 연구 방법의 단계와 내용

단계	내용	비고
	<p>백제 무광왕(무왕)이 지모밀지(익산)에 천도하여 정사(제석사)를 조영하였다.</p> <p>제석사는 불당(佛堂), 칠층목탑(七級浮圖), 낭방(廊房)을 갖춘 사찰이었다.</p> <p>제석사는 정관 13년(639년)에 뇌우로 인하여 전소되었다.</p> <p>공양을 올리고 다시 절을 지어 사리를 봉안하였다.</p> <p>⇒ 제석사지 창건과 운영 시점은 무왕 즉위년도인 600년부터 뇌우로 전소된 639년 사이(최대 범위)로 추정된다. 이후 제석사는 화재 이후 다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p>	문헌기록
1	<p>제석사지는 크게 3차례에 걸친 사찰의 변화가 확인된다. (백제: 帝釋寺 → 통일신라: 丁易寺 → 고려: 帝釋寺)</p> <p>화재로 전소한 제석사의 잔여물들은 별도의 공간(제석사지 폐기유적)에 일괄 폐기하였다.</p> <p>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은 출토유물에서 차이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유적의 연화문수막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 제석사지에서만 암막새와 인장와가 출토되었다. <p>⇒ 창건가람과 관련된 자료는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중건가람과 관련된 자료는 제석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발굴조사
2	<p>제석사 창건 가람의 전소 시점인 639년은 제석사지와 폐기유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p> <p>암막새는 주로 제석사지의 금당지에서 출토되었다.</p> <p>⇒ 639년 이후 제석사지에서는 와즙경관 변화(암막새)가 나타난다.</p>	문헌기록 발굴조사
3	<p>기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전제하는 건축부재로써 규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p> <p>동일 건물에 사용되는 기와는 동일한 규격을 가질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막새의 지름과 수기와의 너비는 유사할 것이다. · 암막새의 너비와 암기와의 너비는 유사할 것이다. · 동일 건물에 사용된 수막새들의 규격은 유사할 것이다. <p>제석사지에서는 연화문수막새, 인동당초문암막새, 인장와가 출토되었다(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2013).</p> <p>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는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고, 암막새와 인장와는 출토되지 않았다(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p> <p>⇒ 639년 이전에는 4개 형식의 연화문수막새가, 639년 이후에는 6개 형식의 연화문수막새, 암막새, 인장와 가 확인되었다.</p>	발굴조사
4	1~3단계의 검토를 통해 지붕에 사용되었던 기와 구성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건가람과 중건 가람의 와즙경관을 추정할 수 있다.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의 조사연구 성과와 문헌기록을 검토하여 사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단서들을 수집한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한 단서들을 분석하여 변화의 분기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추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변화의 분기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시점에 해당하는 기와의 출토위치, 규격, 문양, 제작기법 등을 분석한다. 네 번째 단계는 분석한 기와를 바탕으로 와즙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체로써 지붕을 형성한다. 이처럼 단계별

내용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제석사지의 와즙경관과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1).

III. 제석사지 출토 기와 분석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곡절형 연화문수막새가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반면 제석사지에서만 인동당초문암막새와 인장와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 기와의 종류와 형태가 선택되고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곡절형 연화문수막새의 경우에도 세부 형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되는 양상이 관찰되어, 변화의 흐름이 동일한 형태 속에서도 반영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와의 분석 단계로써, 두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들의 위치, 규격, 문양 등을 검토하여 유적 내 기와들의 구성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붕에 올라가는 건축부재로써 기와는 기능과 경관적인 효과를 모두 갖추기 위한 문양과 규격의 일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통일성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제석사지 및 제석사지 폐기유적 출토 백제 기와 현황

*보고서 개별 수록 기준

유적명	제석사지		제석사지 폐기유적	
조사기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2013)	圓光大學校 馬韓·百濟 文化研究所(199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圓光大學校 博物館(2006)
수막새	27점	13점	91점	14점
암막새	15점	8점	-	-
인장와	14점	4점	1점	-
평기와	-	6점	40점	40점

먼저 유적별 백제 기와의 출토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2). 다년간에 걸친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의 빨굴조사를 통해 다종다양한 백제 기와가 대량 출토된 바 있다. 제석사지에서는 평기와를 제외하면 총 81점의 백제 기와가 보고되었는데, 그중 수막새는 40점, 암막새²⁾는 23점, 인장와는 18점이다(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

2) 인동당초문암막새의 제작연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암막새와 결합된 암기와에서 원통와통 기법 등을 통해 통일신라로 보는 견해와(김성구 1992; 최맹식 2004; 배병선 2013) 층위, 공반유물, 문양 등을 통해 백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심상숙 2005; 김선기 2012, 2016; 전용호 2017). 본고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동

化研究所 199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2013).

수막새의 문양은 대부분 곡절형 연화문이며(37점), 삼각돌기형 연화문(1점)과 파문(2점)은 소량만 보고되었다. 그중 곡절형 연화문은 연판 및 자방의 형태, 연자의 배치 및 개수 등을 토대로 6개의 형식(I ~ VI)의 분류안이 제시³⁾되기도 하였는데(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237), 여러 형식이 사역 전반에 걸쳐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건물에 따른 형식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암막새의 문양은 중앙에 도식화된 귀면문을 배치하고 양쪽에는 바깥으로 뻗어가는 인동당초문을 배치하였다. 인동당초문암막새는 주로 금당지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금당에 사용되어 독특한 경관을 형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장와는 단독형과 조합형이 모두 보고되었다. 그중 간지명 인장와는 절대연대를 추정하는 단서로 활용되기도 한다(김선기 2010: 158). 다만 두글자의 간지가 아닌 한글자만 찍혀있기 때문에 연대를 단정 짓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견해도 있어서(김환희 2014: 3)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평기와는 사역 전역에 걸쳐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로 인해 평기와의 개별 검토보다는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고찰이 진행되었다(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38~3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243). 이러한 방식은 평기와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아쉽게도 규격에 대한 보고는 누락되어 해당 정보의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는 명문와와 문양와를 제외하면 186점의 백제 기와가 보고되었는데, 그중 수막새는 105점, 인장와는 1점, 평기와는 80점이다(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수막새의 문양은 모두 곡절형 연화문이며 연판 및 자방의 형태, 연자의 배치 및 개수 등을 통해 4개의 형식으로 분류되었다(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22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237).

인장와는 처음으로 1점이 출토되어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인장와는 없다라는 기

의하여 논지를 전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향후 별도의 논고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3)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의 분류 기준은 연판의 형태, 자방의 형태, 연자의 개수 등으로 유사하다. 다만 동일 형식의 연화문수막새의 경우에도 조사기관마다 분류번호가 다르게 부여되어서 내용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분류번호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Ⅲ장 서두에서 정리한 후 개별 유적의 기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존의 조사내용(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229)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인장 와의 출토 층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인장의 형태와 문양이 모호하다는 점, 수량의 한계 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기존 조사내용을 부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평기와는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었지만 보고서에 전량 수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찰 파트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일부 평기 와들만 보고서에 개별 수록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기와의 규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부재로써 기와 구성체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기와의 종류별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8엽의 곡절형 화엽을 갖는 연화 문수막새는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을 대표하는 수막새로, 가장 많은 수가 넓은 범위에 걸쳐 출토되었다. 곡절형 연화문수막새는 주연과 화판 사이의 구상권대를 형성하고 화엽의 끝부분을 반전하여 마무리하는 방식 등에서 공통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모티브 아래 제작과 생산이 이루어졌음이 추정된다. 다만 자방의 형태, 연자의 배치와 크기 등에서 일부 차이점도 확인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제작의 흐름은 유지한 채 집단 및 와범(瓦范)의 차이 등에 따라 약간의 구별이 이루어졌음이 추정된다. 해당 유적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형식 분류를 진행하였는데, 조사기관마다 분류 기준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분류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형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마다 다른 분류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을 비교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보고서마다 다르게 제시되었던 분류안을 정리하여 통합된 임시 분류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임시 분류는 먼저 각 보고서에서 제시된 형식들의 상호 비교를 통해 동일한 형식을 매칭하였다. 다음으로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여 시기가 빠른 것을 앞쪽으로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만 출토된 연화문Ⅲ(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과 4형(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을 곡절 1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진 I · II · IV형식(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은 동형범 혹은 유사범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연속선상에 있도록 배치하여 곡절2~4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 형식들의 경우 연화문 I ~ II는 동범으로 추정하고 있으며(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231), 연화문IV도 주로 연자의 크기에서 차이가 간취되어서 향후 자료의 축적과 연구에 따라 통합되거나 분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마지막으로 그 외 형식들의 경우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

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어서 시간 차이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식을 매칭하여 곡절5~6으로 정리하였다(표 3).

[표 3] 제석사지 및 제석사지 폐기유적 출토 곡절형 연화문수막새 임시 분류안

제석사지		제석사지 폐기유적		임시 분류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圓光大學校 馬蹏·百濟 文化研究所(199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圓光大學校 博物館(2006)	
-	-	연화문Ⅲ	4형	곡절1
연화문 I		-	-	곡절2
연화문 II		연화문 II	1형	곡절3
연화문 IV	A형	-	-	곡절4
연화문 III		연화문 IV	2형	곡절5
연화문 VI		연화문 I	3형	곡절6

곡절형 연화문수막새는 6개의 형식으로 구분하였다(표 4). 곡절1은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어서 제석사지 창건가람(639년 이전)과 관련되며 가장 이를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 형식을 곡절형 연화문수막새의 시원 형태로 보고 있으며, 이후 등장하는 다른 형식들의 모델로 추정하고 있다(전용호 2017: 197). 한편 형태적으로 볼 때 다른 형식들과 가장 큰 차이는 자방의 형태인데, 곡절1의 경우 돌출된 자방인 반면 곡절2~6은 양각원권이 둘러진 자방으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또한 드림새에 비해 자방의 비율이 곡절2~4에 비해 작은 편이라는 점도 다른 형식들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곡절2~4는 화엽 내 문양의 유무, 연자의 크기 등의 차이로 인해 형식을 구분하였지만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형태부터 규격까지 상당히 유사하여, 동형법 혹은 유사법까지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도 곡절2~3을 동범와로 파악하고 있어서 시기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238). 또한 곡절4의 경우에도 연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제외하면 규격이나 문양에서 유사하다. 곡절4에 대해서는 제석사지 폐기유적 1형과 동범와로 보고된 바 있지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239) 재검토 결과 드림새와 자방의 직경, 연자의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다른 형식으로 생각된다.

[표 4] 임시 분류안에 따른 곡절형 연화문수막새 특징

※보고서 전체 수록 기준

임시 분류안	유물사진	특징	수량
곡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연 · 화판 사이 구상권대 자방: 돌출 연자: 1+5과 드림새 직경: 14.5cm 자방 직경: 3.8~4.0cm 	총 20점 · 제석사지 0점 · 폐기유적 20점 (부여소 4점, 원광대 16점)
곡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엽 내 인동자엽문 시문 주연 · 화판 사이 구상권대 자방: 양각원권 연자: 1+5과 드림새 직경: 13.8~14.3cm 자방 직경: 4.5~4.7cm 	총 7점 · 제석사지 7점 (부여소 7점) · 폐기유적 0점
곡절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연 · 화판 사이 구상권대 자방: 양각원권 연자: 1+5과 드림새 직경: 13.2~13.8cm 자방 직경: 4.0~4.6cm 	총 181점 · 제석사지 22점 (부여소 9점, 원광대 13점) · 폐기유적 159점 (부여소 16점, 원광대 143점)
곡절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연 · 화판 사이 구상권대 자방: 양각원권 연자: 1+5과(연자 크기 大) 드림새 직경: 13.7~14.0cm 자방 직경: 4.0cm 	총 3점 · 제석사지 3점 (부여소 3점) · 폐기유적 0점
곡절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연 · 화판 사이 구상권대 자방: 양각원권 연자: 1+6과 드림새 직경: 12.8~13.6cm 자방 직경: 3.3~3.7cm 	총 266점 · 제석사지 2점 (부여소 2점) · 폐기유적 264점 (부여소 31점, 원광대 233점)
곡절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연 · 화판 사이 구상권대 자방: 양각원권 연자: 1+4과(연자 크기 大) 드림새 직경: 11.6~12.2cm 자방 직경: 3.4~3.7cm 	총 258점 · 제석사지 3점 (부여소 3점) · 폐기유적 255점 (부여소 20점, 원광대 235점)

곡절5~6은 드림새와 자방의 직경, 연자의 개수 등의 차이를 토대로 형식을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곡절1~4의 경우 연자는 1+5과의 배치를 가지는 반면 곡절5는 1+6과, 곡절6은 1+4과이다. 또한 규격면에서도 곡절1~4에 비해 작은 편이어서 구분이 가능하다. 곡절5~6은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수량적으로 제석사지 폐기유적이 압도하고 있어서 제석사지 창건가람과의 관련성이 추정되기도 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231).

다음으로 곡절형 연화문수막새의 출토위치를 통해 건물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된 수량의 한계로 인해 건물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제석사지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된 곡절3이 금당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 외의 형식들은 소량이어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렵지만 곡절1의 경우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만 출토되고 곡절5와 6의 경우에도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주목할만하다(표 5).

[표 5] 곡절형 연화문수막새 및 인동당초문암막새 출토위치에 따른 수량

종류	제석사지						폐기 유적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승방지	회랑지	기타	
곡절1	-	-	-	-	-	-	20
곡절2	3	1	-	2	1	-	-
곡절3	-	14	3	-	1	4	159
곡절4	1	1	-	-	1	-	-
곡절5	1	-	1	-	-	-	264
곡절6	-	-	-	2	1	-	255
암막새	-	21	1	1	-	-	-

인동당초문암막새는 인장와와 더불어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의 시기를, 그리고 이에 따른 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표 6). 먼저 제석사지에서만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제석사지 중건가람(639년 이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간적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찰의 건물 중에서도 금당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금당의 위계와 장식적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공간적인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금당지에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보이는 곡절3과 관련되어 중건가람 당시 금당의 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표 6] 제석사지 출토 인동당초문암막새 특징

유물사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에 도식화된 귀면문을 두고 좌우에 인동당초문 배치 암키와는 드림새 상단 주연과 문양의 일부로 기능 주연부 하단이 상단에 비해 두껍게 형성 암키와 외면: 선문, 측면: 전면조정, 내면: 원통와통 드림새 너비: 31~32cm, 폭 4.8~5.2cm 암키와 너비: 31~32cm, 길이 43cm / 두께 1.3~1.5cm

제석사지의 와즙경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수량이 투입되는 평기와는 사역 전역에 걸쳐 다량 출토되고 있다. 그중 백제 평기와는 시굴조사에서 총 2,481점(금당지 1,603점, 강당지 878점), 발굴조사에서 총 2,789점을 선별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기와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면의 문양은 주로 무문과 선문이 확인되는데 선문에서 물순질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무문화의 경향성이 추정된다. 암키와의 내면에는 통쪽흔이 확인되어 통쪽와통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측면의 분할 방향은 내면→외면, 외면→내면, 내면↔외면 혼재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암키와에서는 내면→외면이, 수키와에서는 외면→내면이 주로 확인된다. 사용된 태토는 대체로 정선되었고 연질에 가까운 경도를 가지는데, 이러한 양상은 제석사지 폐기유적과 유사하다. 한편 수키와는 토수기와와 미구기와가 확인되는데, 그중 미구기와가 주로 확인되고 있다(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38~3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243).

다음으로 평기와의 규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표 7). 대단위의 수량이 사용되는 기와의 특성상 규격을 통일하여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평기와의 계측 자료를 수집하여 규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지만 어렵게도 해당 보고서에서는 규격의 기술이 생략되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개별로 보고된 평기와도 고작 6점이고 그중에서도 완형은 단 1점이며, 나머지 5점은 파편이면서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도상 복원을 통한 규격의 파악도 불가능하다. 즉, 제석사지에서 규격을 알 수 있는 평기와는 단 1점뿐이다. 1점의 평기와(선문수키와1)는 토수기와로 규격은 길이 40cm, 하단 너비 19.7cm, 상단 너비 14.3cm, 두께 1.5~2.0cm이다(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21). 단일 개체만으로 전체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기초자료의 계측과 재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는 다량이 기와들이 일괄 매몰된 양상으로 출토되었다. 그 중 백제 평기와는 시굴조사에서 40점, 발굴조사에서 40점을 선별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고, 이를 포함한 전체 평기와의 종합적인 분석은 고찰 파트에서 실시하였다. 종합 분석은 시굴조사에서 선별된 평기와 7,419점(암기와 6,298점, 수키와 1,121점)과 발굴조사에서 선별된 평기와 55점(암기와 30점, 수키와 25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양, 제작기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229~23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239). 평기와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면의 문양은 주로 선문

과 무문이 확인되는데 그중 선문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우세한 양상이다. 제석사지 출토 평기와와 마찬가지로 선문에서 물손질 흔적이 확인되어 무문화의 경향성이 추정된다. 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문양의 차이에 따라 형식을 세분하였는데, 무문은 단일 형식, 선문은 14개 형식, 격자문은 2개 형식으로 분류하였다(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57). 암키와는 모두 통쪽와통으로 제작되었으며 통쪽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한줄엮기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제석사지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서 두 유적이 공통된 통쪽와통의 제작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암키와에서는 내면→외면이, 수키와에서는 외면→내면이 주로 확인된다. 사용된 태토는 대체로 정선 되었고 연질에 가까운 경도를 가진다. 한편 수키와는 토수기와와 미구기와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미구기와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평기와의 규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표 7). 규격의 파악이 가능한 평기와는 시굴조사에서 14점(암키와 3점, 수키와 11점), 빌굴조사에서 35점(암키와 4점, 수키와 31점)이 확인되어 이를 대상으로 규격을 추출하였다(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암키와의 규격은 대체로 길이 35~42cm, 너비 25~32cm, 두께 1~2cm의 범위 안에 형성되어 있다. 반면 수키와는 미구기와와 토수기와에서 규격의 차이가 관찰된다. 계측을 통해 규격의 범위를 파악한 결과 미구기와는 전체 길이 30~32cm, 미구 길이 4~6cm, 너비 11~14cm, 두께 1~2cm, 토수기와는 길이 35~40cm, 너비 14~19cm, 두께 1~2cm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토수기와가 미구기와보다 규격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리하면 동일 유적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경우 규격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실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암·수키와에 따라 규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연유에 대해서는 지붕에 기와를 잇는 방법과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암키와와 토수기와의 경우 2~3배를 서로 겹치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겹치는 구간을 고려한 길이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미구기와의 경우 미구부를 통해 기와가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의도했던 적정한 길이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너비는 동일한 종류의 기와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규격이 일치하여야 지붕으로 기능하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일 유적 내 출토된 평기와는 길이가 다르더라도 너비가 유사하다면 세트로써 지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제석사지 및 제석사지 폐기유적 출토 백제 평기와 제원

유적명	종류	문양 (형식)	수량	제원(cm)
제석사지 (圓光大學校 馬韓·百濟 文化研究所 1994)	수 (토수)	선문 (1)	1	길이 40, 두께 1.5~2.0, 너비 14.3~19.7
제석사지 폐기유적 (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암	선문 (4,9)	3	길이 35.4~38.5, 두께 1.5~1.8 너비 24.0~26.5(상단), 28.3~29.6(하단)
	수 (미구)	무문	2	길이 31.0~31.7, 두께 1.5, 너비 12.5~13.0(상단), 13.0~13.4(하단)
	수 (미구)	선문 (2~10)	8	길이 30.6~32.1, 두께 1.4, 너비 11.7~12.8(상단), 12.4~13.8(하단)
	수 (미구)	선문 (1)	1	길이 38.2, 두께 1.5, 너비(상단) 14.3
제석사지 폐기유적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2019)	암	선문	4	길이 38.0~42.6, 두께 1.5~2.2 너비 31.7~32.6
	수 (미구)	무문	5	길이 30.0~31.2, 두께 1.5~2.0, 너비 13.0~14.2
	수 (미구)	선문	25	길이 30.0~31.8, 두께 1.4~1.9, 너비 12.8~14.4
	수 (토수)	선문	1	길이 35.7, 두께 1.3~1.5, 너비 14.6

IV. 제석사지 와즙경관의 변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 바로 변화의 분기점이 된다. 이때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시각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각이 양립하게 되는데, 집단 내 의견의 절충에 따라 변화의 방향과 정도가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내부 합의에 따른 변화의 수용과 적응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합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변화가 강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집권자의 명령과 지시 등으로 인해 요구가 반영되는 경우, 혹은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여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변화가 강압적이고 급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변화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의 현상과 연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인 익산 제석사지는 양자의 시각이 모두 나타나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

동안의 빌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변화의 분기점, 양상, 연유 등이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먼저 백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하여 제석사를 조영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부여에서 익산으로 국가 권력의 헤게모니가 변화하는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상응하는 고고자료로는 곡절형 연화문수막새가 있다. 동시기 부여지역에서는 원형 돌기형, 삼각돌기형 등 다양한 형식의 연화문수막새가 공존하는 반면 익산지역, 그것도 제석사지에서는 곡절형 연화문수막새가 성행한다. 즉 부여지역과의 차별을 가지는 새로운 방식의 직접적인 양식의 성행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다음으로 639년 놀후로 인해 제석사가 불탄 이후 다시 절을 지었다는 기록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해 강제로 변화의 분기점에 도래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상응하는 고고자료로는 화재 기록을 증명해주는 제석사지 폐기유적의 존재, 제석사지에서만 출토된 암막새, 인장와 등이 있다. 연화문수막새의 경우 곡절형이 계속 유지되면서 일부 변화된 형식이 제외되거나 추가되지만 그 형태적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암막새와 인장와의 출현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경관의 변화와 생산체계의 최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전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은 기존 양식의 유지라는 보수적인 측면과 새로운 양식의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이에 따라 이번 장에서는 변화의 시작인 창건 시점(7세기 전반), 화재로 인한 전소 시점(639년), 화재 이후 중건 시점(7세기 중반)을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분기점 사이에 해당하는 창건가람과 중건가람의 와즙경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건가람은 탑과 금당을 중문과 회랑이 감싸고 있는 배치로 추정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230). 건물들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건물의 구조가 결정되고 와즙경관이 갖춰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창건가람의 경우 일괄 폐기와 매몰이라는 출토 위치의 부재로 인해 건물마다의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창건가람 내 개별 건물들의 와즙경관을 무리하게 추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와즙경관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창건가람은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들을 통해 세트 구성체를 파악할 수 있다.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곡절형 연화문수막새는 6개의 형식으로 분류되며, 그중 창건가람에서는 곡절1·3·5·6이, 중건가람에서는 곡절2~6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형식의 유무와 차이를 통해 곡절3~6은 창건부터 중건까지 공존하고 유지되면서도 가람에 따라 곡절1~2와 같이 별도의 형식이 독립하고 단절되는 모습이 관

찰되었다. 이처럼 곡절형 연화문수막새는 같은 흐름 속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도 일부 변화를 시도하고 적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창건가람에서 아직까지 암막새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아 수막새와 암막새가 세트로 구성되는 경관은 상정하기 어렵다. 즉 지붕의 끝은 곡절1의 특색 있는 수막새와 곡절3·5·6의 공통되는 수막새만으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기와 문양은 암·수키와 모두 선문과 무문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선문에서도 물순질 등이 이루어져 무문화 경향을 보이는 듯 하다. 수키와는 토수기와와 미구기와가 모두 확인되지만 미구기와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미구기와 중심의 경관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규격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창건가람보다 중건가람의 평기와가 약간 더 크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김선기 2007: 34), 그 차이가 수치로 제시되지 않아서 규격을 통해 평기와의 사용 시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평기와의 특성상 막새에 비해 특이점이 적고 장식의 요소가 적은 편이어서 의장 중심의 경관적인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즙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평기와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 즉, 막새가 문양의 아름다움을 통해 경관을 형성한다면 평기와는 여러 매가 겹쳐지면서 형성되는 라인의 규칙과 같은 전체적인 통일성이 주는 압도적인 안정감으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창건가람의 기와 구성체를 통해 와즙 방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우선 지붕 끝에서 곡절1·3·5·6 연화문수막새와 암키와가 결합되어 경관을 형성한다. 수막새의 직경이 형식에 따라 11.6~14.5cm에 분포하고 암키와의 너비가 28~32cm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암키와의 가운데가 1/2 가량 노출된 상태로 수막새와 결합되었음이 추정된다. 한편 지붕 전체에 사용된 평기와는 규격을 통해 기와의 있는 방법과 범위가 파악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미구기와의 존재가 특히 주목된다. 미구기와끼리의 결합은 미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구를 제외한 부분이 지붕으로 사용된 수키와(미구기와)의 경관이 된다. 미구기와의 전체 길이는 30~32cm이지만 미구의 길이가 4~6cm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출되는 부분은 24~28cm가 되는데, 이는 동일 건물 내 수키와 끝단의 가로 라인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암키와는 전체 길이 35~42cm에 분포하고 있어서 수키와보다 길이가 긴 편인데, 앞서 도출된 수키와의 노출된 부분의 길이, 끝단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가로 라인을 형성한다면 암키와는 필연적으로 겹쳐지게 된다. 이는 곧 암키와를 잇는 방법과 범위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는데, 암키와끼리 겹쳐지는 범위가 단일 암키와의 1/3이어서 2배

잇기 방법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토수기와의 경우에도 미구기와 함께 사용되었다면 가로 라인을 통한 잇기 방법을 추정할 수 있는데, 토수기와가 길이 35~40c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수기와끼리 약 1/3이 겹쳐졌을 것이어서 2매 잇기⁴⁾의 방법이 추정된다(사진 2).

중건가람은 금당, 강당을 중문, 회랑이 감싸고 있는 배치로 추정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230). 중건가람은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들을 통해 세트 구조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창건가람의 기와 출토맥락과 달리 중건가람의 기와들은 비교적 출토위치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서 건물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보고된 수량이 극소량이어서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도 금당지에서는 수량적으로도 맥락적으로도 유의미한 기와들이 출토되어서 금당의 모습을 일면이나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건가람 역시 창건가람과 마찬가지로 곡절 3~6 연화문수막새가 지속되면서도 기존에 유행했던 곡절1이 단절되고 곡절2가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관찰된다.

또한 암막새라는 새로운 종류의 기와가 변화의 분기점에서 새롭게 출현하여 중건가람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기존에 유행했던 수막새의 형식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인동당초문암막새라는 새로운 종류의 기와를 도입하여 비로소 수막새와 암막새가 세트가 되는 경관을 형성한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곡절3 연화문수막새와 인동당초문암막새가 금당지에서 집중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형식의 수막새와 암막새의 사용이 금당에 한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사찰 내에서도 건물의 위계에 따라 각기 다른 와즙경관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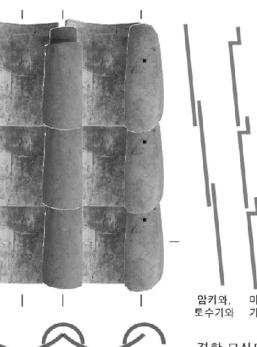
평기와는 창건가람의 양상과 유사하여 중건가람 당시에도 유사한 경관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의문인 점은 암막새에 겹합된 암키와와 단일 암키와에서 와통의 차이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와 후자에 사용되는 암키와는 따로 구분하여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용되는 암키와를 제작한 후에 필요에 따라 암키와의 단부를 가공하여 암막새를 결합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 편이다.

4) 기와를 잇는 방식은 기와가 겹치는 정도에 따라 2~3겹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공주 반죽동 197-4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암막새에서 가로방향의 주철 흔적이 확인되어 2겹 잇기 방식이 추정된다(조원창 2020: 22~23). 물론 건물 규모와 구조에 따라 와즙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어서 향후 추가되는 자료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암막새 결합 암키와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원통와통을 이용한 제작이 관찰되는 반면 단일 암키와에서는 여전히 통쪽와통을 이용한 제작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에서는 제석사지 출토 인동당초문암막새의 층위, 공반유물 등을 토대로 백제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심상육 2005; 김선기 2010, 2012; 전용호 2017). 이러한 제작연대를 신뢰할 수 있다면 동일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암키와를 생산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단일 암키와의 경우 원통와통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암막새 결합 암키와에서만 원통와통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또한 암키와가 암막새 주연부 상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존에는 나타나지 않던 결합기법이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적극 해석하면 암키와의 제작은 사용처와 추후 가공 여부를 염두에 두고 별도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양식의 도입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고 동일하게 제작하여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건가람의 기와 구성체를 통해 와줍 방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중건가람 내 건물들의 와줍경관은 금당과 그 외 건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금당의 경우 지붕 끝에서 곡절2~4와 인동당초문암막새가 결합되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

시기	막새 출토양상		지붕 끝 와줍양상	지붕 와줍양상
	공통	개별		
창 건 가 람				
				
중 건 가 람				
				

[사진 2] 제석사지 창건가람과 중건가람의 와줍양상

관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막새와 암막새의 규격을 통해 결합 양상을 파악해보면, 곡절2~4는 직경 13.2~14.3cm에 분포하고 암막새의 너비는 31~32cm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암막새의 끝단의 일부가 가려진 채 결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붕 전체에서 사용되는 평기와의 경우 규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직접적인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창건가람에 사용된 평기와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매 잇기로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사진 2).

V. 맷음말

사물마다 쓰임의 목적이 있듯이 기와의 쓰임도 지붕을 덮는 마감재로써 그 목적을 하고 있다. 이미 기와는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을 방어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외부로 드러난 건축부재라는 특징을 살려 의장적인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기와는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장식 요소가 가감되면서 건물의 위계와 특징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재로 활용되고 있다. 즉 다양한 기와들이 구성되어 표현되는 와즙경관이야말로 지붕을 설계하고 지붕을 제작했던 제작자가 의도했던 경관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지붕의 마감재로써 기와의 사용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익산 제석사지는 시공간적으로 범위가 한정될 뿐만 아니라 기초자료인 문헌기록과 고고자료가 잘 남아 있는 편이어서 와즙경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제석사지와 제석사지 폐기유적 출토 기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막새는 곡절형 연화문이 성행하는데, 세부 속성에 따라 6개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창건가람에서는 곡절1·3·5·6이, 중건가람에서는 곡절2~6이 확인되며, 그중 곡절3~6은 창건부터 중건까지 공존하고 유지되면서도 가람에 따라 곡절1~2와 같이 별도의 형식이 독립하고 단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건가람으로 변화하며 새롭게 출현하는 암막새를 통해 획기적인 경관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연유는 기존 양식의 유지라는 보수적인 측면과 새로운 양식의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창건 시점(7세기 전반), 전소 시점(639년), 중건 시점(7세기 중반)을 변화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분기점 사이에 해당하는 창건가람과 중건가람의 와즙경

관을 살펴보았다. 창건가람은 곡절형 연화문수막새만으로 경관이 형성되는 반면 중 건가람은 기존에 유행했던 수막새가 유지되면서 새롭게 인동당초문암막새를 도입하여 비로소 수막새와 암막새가 세트가 되는 경관을 형성한다. 또한 중건가람의 경우 기와의 출토위치가 분명한 편이어서 개별 건물의 와습경관도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곡절3 연화문수막새와 인동당초문암막새가 금당지에서 집중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 내에서도 건물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와습경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 수록된 기와들의 규격을 산출하여 결합 방식을 추정하였다. 수막새의 직경이 11.6~14.5cm에 분포하고 암키와의 너비가 28~32cm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암키와의 가운데가 1/2 가량 노출된 상태로 수막새와 결합되었음을 추정하였다. 또한 미구기와의 전체 길이가 30~32cm이지만 미구의 길이가 4~6cm인 점을 감안하면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은 24~28cm가 되는데, 이는 동일 건물 내 기와 끝단의 가로 라인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한편 암키와는 길이 35~42cm에 분포하고, 토수기와는 길이 35~40cm에 분포하고 있어서 앞서 도출된 미구기와와 동일한 가로 라인을 형성한다면 겹쳐지는 범위가 1/3이며, 이를 통해 2배 잇기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하였다.

결국 와습경관의 복원은 출토된 기와(막새, 평기와, 치미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성체의 설정(단위), 규격성과 통일성을 담보로 한 기와의 배치와 잇는 방식의 규명(기술)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추가되는 자료들의 지속적인 검토와 최신 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검증을 진행한다면, 고대 건물의 와습경관이 더욱 분명하게 구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23. 8. 28 | 심사완료일 2023. 9. 27 | 게재확정일 2023. 10. 10

참고문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
- _____, 2013,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I』.
- _____, 2019, 『帝釋寺址 -제석사지 폐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I』.
- 김선기, 2007, 「百濟帝釋寺址 出土 百濟기와에 대하여」, 『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 III』.
- _____, 2010, 「益山地域 百濟寺址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2, 「백제시대 암막새 형식과 전개」, 『문물연구』22,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 _____, 2016, 「호남지역 백제시대 와당 연구」, 『馬韓·百濟文化』27,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 김경현, 2017, 「익산 제석사지 창건에 관한 연구」, 『야외고고학』28, 한국문화유산협회.
- 김환희, 2014, 「百濟泗沘期 印章瓦의 변천과 제작공정 체계화」,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환희 외 2인, 2021, 「제석사지 폐기유적의 시기와 형성에 대한 검토」, 『한국고고학보』2021-1, 한국고고학회.
- 배병선, 2013, 「제석사지와 익산의 백제건축」, 『639년 금마저: 고대 익산의 미술사적 고찰』, 한국미술사학회 ·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심상육, 2005, 「백제 암막새의 출현과정에 관한 검토」, 『文化財』38, 국립문화재연구소.
- 양숙자 외 2인, 2013, 「7세기 익산 지역 백제 연화문수막새 제작기법 연구 – 익산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미륵사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고고학』12-3, 중부고고학회.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查報告書』.
- 圓光大學校 博物館, 2006, 『益山王宮里傳瓦窯址(帝釋寺廢棄場) 試掘調查報告書』.
- 李炳鎬, 2015, 「百濟泗沘期 益山 開發 時期와 그 背景」, 『百濟研究』61,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전용호, 2017, 「익산 제석사지 출토 수막새에 대한 일고찰 – 익산 왕궁리유적 및 미륵사지 출토 수막새와 비교를 중심으로-」, 『歷史學研究』68, 湖南史學會.
- 정치영, 2010, 「百濟漢城의 瓦當과 瓦葺景觀」, 『호서고고학』23, 호서고고학회.
- 趙源昌, 2020, 「기와와 遺跡 事例로 본 百濟 熊津期 大通寺 佛殿 지붕과 치마의 形式 檢討」, 『文化史學』54, 韓國文化史學會.
- 최경환, 2017, 「백제 왕홍사 초창기 기와 수급체계에 대한 계량적 연구」, 『한국고고학보』105, 한국고고학회.
- 최맹식, 2004, 「三國 암막새의 始原에 관한 小考」, 『文化史學』21, 韓國文化史學會.

Changes in Tiled Roof Landscape of Jeseoksa Temple Site in Iksan

Kim, Hwan-Hee (Researcher, Baekje Royal sit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ivis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main role of roof tiles is the finishing material of the roof, and looked at the shape of the roof that functions as a series of components by combining large-scale objects in terms of tile roof scenery.

First, the technic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of various roof tiles excavated from the site and abandoned ruins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a convex roof-end tile with curved lotus design are prevalent, and they are classified into six types according to detailed properties. A convex roof-end with curved lotus design 1, 3, 5, and 6 were identified in the founding Buddhist temple, and a convex roof-end with curved lotus design 2 to 6 were identified in the re-built Buddhist temple, and individual forms were added or disconnected according to the temple site by perio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landscape was drastically changed through a concave roof-end tile appearing in the re-built Buddhist temple. The reasons for this change were understood from the conservative aspect of maintaining the existing style and the innovative aspect of introducing a new style.

Next, the foundation of the Buddhist temple(first half of the 7th century), destruction caused by fire(in 639), and reconstruction of the Buddhist temple(middle of the 7th century) were set as the turning points of change, and the tiled roof scenery of the founding and reconstruction temples was examined. While the founding Buddhist temple forms a landscape with only a convex roof-

end tile with curved lotus design, the reconstruction temple newly introduces a concave roof-end tile with honeysuckle arabesque pattern to form a landscape in which the convex roof-end tile and the concave roof-end tile become a se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iled roof scene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hierarchy of the building in the re-built Buddhist temple, as a convex roof-end tile with curved lotus design 3 and a concave roof-end tile with honeysuckle arabesque design were concentrated in the central main building of the Buddhist temple.

Finally, the standard of roof tiles was calculated to estimate the coupling method and degree. It was confirmed that a concave roof-end(concave tile) was combined with a convex roof-end tile with the center exposed by about half.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ndardization and arrangement of roof tiles, it was estimated that the two-piece connection method was used.

Key words : Baekje, Jeseoksa Temple Site, Roof tile, Landscape, Changes